

원저

五俞穴을 이용한 四時刺法 - 『靈樞』와 『難經』을 중심으로 -

홍원식¹⁾ · 엄동명²⁾

¹⁾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교실

²⁾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Abstract

Study on Acupuncture Follow the Four Season

Won-Sik, Hong¹⁾ · Dong-Myung, Eum²⁾

Department of Classic & Medical History, School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¹⁾ Kyung Hee University, ²⁾ Se Myung University

There is a acupuncture method which make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our seasons, according to body region or depth in skin. We call it Acupuncture follow the four seasons(四時刺法). In several chapters of Huangdineijing(黃帝內經) introduced Acupuncture follow the four seasons. Acupuncture follow the four seasons has two kinds of acupuncture method that is to acupuncture at body region and to acupuncture at five Su points(五俞穴). To use five Su points(五俞穴) according to Yongchu(靈樞) disagree with Nanjing(難經). In Yongchu(靈樞), the five phases property disagree with five Su points(五俞穴), but in Nanjing(難經) the five phases property agree with five Su points(五俞穴). Even if we can acupuncture the same point, there will be the different effect according as what is the purpose of doing acupuncture, and when we do acupuncture. That is to say, we can use apucupuncture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in Yongchu(靈樞), and for the purpose of healing the disease in Nanjing(難經).

Therefore, because we select the point on the base of meridian *Ki's* origin which spring out, we have to acupuncture *Chong* point(井穴) in winter according to *Yongchu*(靈樞). Because we select the point on the base of meridian *Ki's* origin which flowing, we have to acupuncture *Chong* point(井穴) in spring

· 접수 : 2000년 10월 28일 · 수정 : 11월 9일 · 채택 : 11월 11일

· 교신저자 : 홍원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교실(Tel: 02-961-0326)

according to Nanjing(難經). And in the base of five phases' property, the purpose of selecting five Su points(五俞穴) is the prevention according to Yongchu(靈樞), and the healing according to Nanjing(難經). So even though we acupuncture the exactly same Chong point(井穴), we can expect the effect that acupuncture method supply Ki for liver in winter. and the effect that it extract pathogenic Ki(邪氣) from the liver in spring.

Key words : 사시자법Acupuncture follow the four season, 원전학Classics, 오수혈five Su points, 침자법Acupuncture treatment method, 황제내경Huangdineijing, 난경Nanjing

I. 서론

침구는 약물과 더불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며, 병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이나 질병이 발생한 계절에 따라 치료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仲景의 말을 인용하여 봄에는 吐法을 위주로 하고, 여름에는 汗法을 위주로 하며, 가을에는 下法을 위주로 하고, 겨울에는 薰蒸療法이나 뜸법을 위주로 하며¹⁾, 심지어 같은 처방이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구성약물을 다르게 배합하는 경우를 소개하여, 계절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매우 융통성 있게 운용하였다²⁾.

1) 許俊,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二, 用藥門 用藥大法, 南山堂, pp. 349. 이에 대한 설명으로 東垣의 말을 인용하여 '春宜吐, 象萬物之發生, 使陽氣之鬱者, 易達也, 夏宜汗, 象萬物之浮而有餘也, 秋宜下, 象萬物之收成, 推陳致新也, 冬宜周密, 象萬物之閉藏, 使陽氣不動也'라 하였다.

2) 한 예를 들면, 方廣은 內傷에 外感을 낀 경우 補中益氣湯을 쓰면서 봄에는 川芎 防風 柴胡 荊芥 紫蘇 薄荷를 加하고, 여름에는 升麻 柴胡를 倍로 하고 乾葛 石膏 麥門冬 薄荷를 加하였으며, 가을에는 羌活 防風 荊芥를 加하고, 겨울에는 麻黃 桂枝 乾薑을 加하였다. 또 牛黃散

마찬가지로 침구치료에 있어서도 계절에 따라 치료를 다르게 한 방법은 『黃帝內經』에서부터 많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春夏秋冬, 各有所刺'³⁾라고 하여, 그 계절에 해당하는 부위가 아닌 곳에 침을 놓으면 질병이 더 심해진다고 한 경우도 있으며⁴⁾, 겨울에는 침이나 뜸석을 적게 쓰라고 하기도 하였다⁵⁾. 『素問』 <刺要論>에서는 病에는 浮沈의

자를 써서 穀疸 酒疸 水氣 蠱脹을 치료하는데, 이 처방은 黑丑 大黃 檳榔 甘草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봄에는 각 八分, 여름에는 각 九分, 가을에는 각 七分을 썼으며, 겨울에는 黑丑 大黃은 각 一錢, 檳榔 甘草는 각 四分을 쓴다는 내용을 古今醫鑑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許浚, 상계서, pp. 433, 513.)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診要經終論 第十六, 東洋醫學研究院, pp. 54.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素問 診要經終論이나 刺要論, 刺齊論, 四時刺逆從論 등 여러 편에 실려 있다. 봄을 예로 들면 診要經終論에서는 "春刺夏分, 脈亂氣微, 入淫骨髓, 病不能愈, 令人不嗜食, 又且少氣. 春刺秋分, 筋攣, 逆氣環, 爲欬嗽, 病不愈, 令人時驚, 又且哭. 春刺冬分, 邪氣著藏, 令人脹, 病不愈, 又且欲言語."라 하였고, 四時刺逆從論에서는 "春刺絡脈, 血氣外溢, 令人少氣, 春刺肌肉, 血氣環逆, 令人上氣, 春刺筋骨, 血氣內著, 令人腹脹."이라 하여, 계절에 맞지 않는 부위에 자침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하여, 자침을 하는데 있어 계절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5) 洪元植, 상계서, 素問 通評虛實論 第二十八, pp. 108. "冬則閉塞, 閉塞者, 用藥而少鍼石也." 겨울이면 水氣가 用事하여 만물의 기운이 속으로 갈무리되듯이, 인체에서도 腎에 精氣를 갈무리하여 요동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藥을 쓰고 鍼石은 적게 쓰라고 한 것이다.

차이가 있고 鍼刺에는 淺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말고 마땅한 깊이에 침을 놓으라고 하면서 침을 놓는 부위를 毫毛腠理-皮-脈-肉-筋-骨-髓로 구분하였다⁶⁾. 이와 같이 刺法에도 淺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절과 연관시켜서, 계절에 따라 刺鍼하는 깊이를 다르게 하거나 치료하는 부위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四時刺法'이라고 한다.⁷⁾

사시자법에 대한 내용은 「素問」 <金匱眞言論>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언뜻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서술해 놓기도 하였다. 기존의 연구로 金⁸⁾은 形氣, 經脈, 脈象, 病情, 四時, 病所 등에 따른 자침심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李⁹⁾는 사시자법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는데 치중하였다. 李¹⁰⁾는 本輸理論을 다루는 가운데 계절에 따른 침자법을 언급하였으나 주된 주제로 삼아서

다루지는 않았다.

사시자법은 크게 皮毛, 血脈, 肌肉 등과 같이 部位를 이용한 방법, 五俞穴을 이용한 방법, 두가지 방법을 함께 혼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五俞穴을 이용한 방법은 『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 온전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이 『난경』 <七十四難>에도 나온다. 그러나 『내경』과 『난경』의 내용에 차이가 많고, 역대 주석가들도 『내경』 문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분석하고, 『난경』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오수혈을 이용한 사시자법이론을 정리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법칙을 통해 한의학원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울러 천인상응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 침구치료에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黃帝內經』의 五俞穴 應用 四時刺法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五俞穴을 이용하여 主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¹¹⁾ 藏은 겨울을 주관하므로 겨울에는 井穴에 자침하고, 色은 봄을 주관하므로 봄에는 榮穴에 자침하고, 時는 여름을 주관하므로 여름에는 輸穴에 자침하고, 音은 장하를 주관하므로 長夏에는 經穴에 자침하고, 味는 가을을 주관하므로 가을에는 合穴에 자침합니다. 이를 일러서 五變이라고 합니다. …… 岐伯이 말하기를, 病이 藏에 있으면 井穴을 취하고, 病變이 色에 나타나면 榮穴을 취하고, 病이 때로 좋아졌다가

6) 刺齊論에도 '皮-脈-肉-筋-骨'로 구분하여 刺要論과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자오론에서는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였으며, 아울러 잘못 자침하였을 경우에 오장의 기운을 요동시켜 다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 "刺毫毛腠理無傷皮, 皮傷則內動肺, 肺動則秋病溫瘧, 沂沂然寒慄"이라 하였는데, 이 편에서는 계절과 연관시켜 설명하지는 않았다.

7) 사계절에 따라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이름을 붙였다. 계절에 따른 침법을 포함하여 시간에 따라 침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경우는 오소덕(吳紹德)이 "안시자구(按時刺灸)"라고 명명하였는데, 그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첫째는 일일변화에 따라 침을 달리 놓는 방법, 둘째는 일년 오운육기의 변화에 따라 침을 달리 놓는 방법 등으로 요약하였다. (試論"按時刺灸"의由來和發展, 中醫雜誌, 1983년 제2기, 총127기, pp. 47~48.)

8) 金洋植, 崔容泰, 刺鍼深度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Vol. 4, No.1, 1987.

9) 李相範 외 2인, 四時의 鍼刺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會誌 Vol.12, No.1 통권 제21호.

10) 李容範,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3.

11) 본문에는 없으나 앞 뒤 문맥으로 보아 들어가야 마땅할 것이다.

때로 심해지면 輸穴을 취하고, 病變이 音聲에 나타나면 經穴을 취하고, 經脈에 邪氣가 그득하여 皮명이 든 경우나 病이 胃에 있는 경우나 飲食을 제 때 맞추어 먹지 않아서 病을 얻었으면 合穴을 취합니다.¹²⁾

위 내용을 요약하면, 病變이 色에 나타나는 경우는 봄에 榮穴을 취하고, 病이 때로 좋아졌다가 때로 심해지는 경우는 여름에 腧穴을 취하고, 病變이 音聲에 나타나는 경우는 長夏에 經穴을 취하고, 經脈에 사기가 그득하여 皮명이 든 경우나 病이 胃에 있는 경우나 飲食을 제 때 맞추어 먹지 않아서 病을 얻은 경우는 가을에 合穴을 취하고, 病이 藏에 있는 경우는 겨울에 井穴을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주석가들의 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註釋家들의 見解.

楊上善¹³⁾과 張介賓¹⁴⁾은 五藏 五色 등의 氣機變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篇 第四十四, pp 206~207. 黃帝曰, 以主五輸, 奈何. 藏主冬, 冬刺井, 色主春, 春刺榮, 時主夏, 夏刺輸. 音主長夏, 長夏刺經, 味主秋, 秋刺合, 是謂五變. …… 岐伯曰, 病在藏者, 取之井, 病變於色者, 取之榮, 病時間時甚者, 取之輸, 病變於音者, 取之經, 經滿而血者, 病在胃及而飲食不節得病者, 取之於合.

1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pp. 134. 冬時萬物收藏, 故五藏主冬也, 井爲木也, 木春也, 春時萬物始生, 如井中泉水, 冬時萬物始萌, 如井水深未出, 而刺之者, 刺井微也, 春時萬物初生鮮華, 故五色主春, 榮火也, 火夏也, 夏時萬物榮長, 如水流溢, 春時萬物始生未榮, 而刺之者, 亦刺榮微也, 長夏萬物榮盛, 音律和四時之序, 故五音主於長夏, 經金也, 金秋也, 秋時萬物將衰, 長夏之時, 萬物盛而未衰, 而刺之者, 亦刺經微, 夏時萬物榮華, 四時之勝, 故五時主夏, 輸土也, 土長夏也, 長夏之時, 萬物盛極, 如水致聚, 夏時萬物榮未盛極, 而刺之者, 亦刺輸微也, 秋時萬物皆熟, 衆味並盛, 故五味主秋也, 合水也, 水冬也, 冬時萬物收藏, 如水之入海, 秋時萬物收而未藏, 而刺之者, 亦刺合微也.

14) 張介賓, 張氏類經, 成輔社, pp. 671. 五藏主藏, 其氣應冬, 井之氣深, 亦應乎冬, 故凡病之在藏者, 當取各經之井穴也. 五色蕃華, 其氣應春, 榮穴氣微, 亦應乎春, 故凡病見於色者, 當取各經之榮也. 五時長養, 其氣應夏, 腧穴氣盛, 亦應乎夏, 故凡病之時作時止者, 當取各經之輸也. 五音繁盛, 氣應長夏, 經穴正盛, 亦應長夏, 故凡病在聲音者, 當取各經

化가 계절에 상응하는 이치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五藏은 精氣를 갈무리하여 겨울의 時令에 응하는데, 井穴도 그 기운이 깊이 있어서 겨울의 時令에 응하기 때문에 겨울에 井穴을 취하며, 五色은 榮火로움을 드러내어 봄의 時令에 응하는데, 榮穴도 기운이 얇게 있어서 봄의 時令에 응하기 때문에 봄에는 榮穴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楊上善은 해당 혈자리의 미약한 기운을 취한다고 함으로써 계절의 오행속성과 오수혈의 오행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장개빈은 井穴과 榮穴에 대하여는 혈자리의 깊이를 들어 설명하고, 다른 혈자리에 대하여는 氣의 盛衰多少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楊上善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계절과 오수혈의 오행이 일치하는 「난경」 <74난>이 잘못되었으므로 「내경」을 기본으로 하여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하였다. 馬蒔¹⁵⁾는 겨울에는 肝經의 大敦穴(井木穴), 心經의 少衝穴(井木穴), 봄에는 肝經의 行間穴(榮火穴), 心經의 少府穴(榮火穴)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구체적인 혈자리를 들어 설명하였다. 張志聰¹⁶⁾은 腎은 冬藏之氣에 합하고 肝은 春

之經也. 三味成熟, 以養五藏, 其氣應秋, 合穴氣微, 亦應乎秋, 故經滿而血者病在胃, 及因飲食內傷者, 當取各經之合也. 按本篇, 五時之刺以應五輸, 謂冬刺井, 春刺榮, 夏刺輸, 長夏刺經, 秋刺合者, 以井應冬, 榮應春, 輸應夏, 經應長夏, 合應秋也, 如本輸, 四時氣, 水熱穴等論, 所載皆同, 不可易者, 考之六十五難曰, 井者東方春, 合者北方冬也, 七十四難曰, 經言春刺井, 夏刺榮, 季夏刺輸, 秋刺經, 冬刺合, 皆與本經不合, 必難經之誤也, 當以本經爲正, 不可不辨.

1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pp. 355. 凡病在於藏者, 必取五藏之井, 如肝取大敦, 心取少衝之類. 色主於春, 故凡病在於色者, 必取五藏之榮, 如肝取行間, 心取少府之類. 時主於夏, 故凡病時間時甚者, 必取五藏之輸, 如肝取太衝, 心取神門之類. 音主於長夏, 故凡病在於音者, 必取五藏之經, 如肝取中封, 心取靈道之類. 味主於秋, 故凡病在於胃及飲食不節得病者, 必取五藏之合, 如肝取曲泉, 心取少海之類. 是之謂五變以主五輸, 所謂五五二十五輸以應五時也.

16) 張志聰, 圖書集成醫部全錄, Vol. 3, 大星文化社, pp. 356. 腎者, 主封藏之本, 藏主冬, 此腎合冬藏之氣也. 肝主色, 色主春, 此肝合春生之氣也. 心者, 生之本, 神之變

生之氣에 합하는 등과 같이 五藏과 계절의 상관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子穴을 취하여 母氣를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함으로써 五俞穴의 오행속성과 계절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면, 양상선, 장개빈, 장지총 등은 계절에 따라 혈자리를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마시는 그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혈자리 이름만 거론하였다. 양상선과 장개빈은 샘물에 비유하여 오수혈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혈자리의 천심과 기의 盛微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양상선과 장지총은 미약한 기운을 취하거나 母氣를 끌어낸다고 하여 오수혈과 계절의 오행이 맞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장개빈은 「난경」과 같이 일치시킨 경우는 틀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장개빈의 설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자. 그는 井穴 - 氣深, 榮穴 - 氣微, 俞穴 - 氣盛, 經穴 - 正盛, 合穴 - 氣斂이라고 하여, 井穴은 淺深으로 나머지는 氣의 微盛로 오수혈을 설명하였다. 양상선도 마찬가지로 井穴에서 깊이 자리잡은 기운을 취한다고 함으로써 겨울에 井穴을 자침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영추」 <九鍼十二原>에서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臑, 所行爲經, 所入爲合.”¹⁷⁾이라 하여 오수혈을 물줄기에 비유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井穴에서부터 合穴로 점점 더 깊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물은 땅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물길에서부터 말한다면 깊다고 할 수 있고, 地表로 모습을 드러내어 흐르는 물줄기에서부터 말한다면 얕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井穴을 설명할 때 얼마만큼 깊이 위치하는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井穴이 깊은 곳에 있는지, 얇은 곳에 있는지를 다르게 봄으로써, 정혈을 자침하는 계절이 달라질 수 있고, 정혈을 취하여 다스리는 병증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경」과 「난경」에서 언급하는 사시자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난경」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3) 「難經」의 五俞穴 應用 四時刺法

경에서 말한 '봄에는 井穴에 침을 놓고 여름에는 榮穴에 침을 놓고 늦여름에는 俞穴에 침을 놓고 가을에는 經穴에 침을 놓고 겨울에는 合穴에 침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봄에 井穴에 침을 놓는 것은 邪氣가 肝에 있는 경우이며, 여름에 榮穴에 침을 놓는 것은 邪氣가 心에 있는 경우이며, 늦여름에 俞穴에 침을 놓는 것은 邪氣가 脾에 있는 경우이며, 가을에 經穴에 침을 놓는 것은 邪氣가 肺에 있는 경우이며, 겨울에 合穴에 침을 놓는 것은 邪氣가 腎에 있는 경우입니다. 간 심 비 폐 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연계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장이 한번 병들면 곧 다섯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肝病은 푸른빛이 나타나면 간병이고, 누린내가 나면 간병이고, 신 것을 좋아하면 간병이고, 자주 고함을 지르면 간병이고, 자주 눈물을 흘리면 간병이라고 하니, 그 병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계절에 침을 놓는데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함께 연계되니, 침을 놓는 오묘한 이치는 털끝만큼 미묘한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¹⁸⁾

也, 時主夏, 心合夏長之氣也. 土數五, 五者音也, 音主長夏, 脾合長夏之氣也. 五味入口, 藏於腸胃, 陽明主秋金之氣, 味主秋, 腸胃合秋收之氣也. 此五藏之氣, 應五時之變, 而取之五俞, 各有所主也. 春刺榮, 夏刺俞, 長夏刺經, 秋刺合, 冬刺井, 皆從子以透發母氣.

17) 洪元植, 상계서, 靈樞 九鍼十二原篇 第一, pp 12.

18)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難經 七十四難, 正言出版社, pp. 407~409. 經言春刺井, 夏刺榮, 季夏刺俞, 秋刺經, 冬刺合者, 何謂也, 然, 春刺井者, 邪在肝, 夏刺榮者, 邪在心, 季夏刺俞者, 邪在脾, 秋刺經者, 邪在肺, 冬刺合者,

위 내용을 요약하면, 청색이 나타나거나 누린내가 나거나 신맛을 좋아하거나 자주 고함을 지르거나 자주 눈물을 흘리면 肝病의 범주에 속하며, 이와 같이 邪氣가 肝에 있는 경우는 봄에 井穴에 침을 놓는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을 미루어 보면, 쓴맛을 좋아하거나 자주 웃거나 자주 땀을 흘리면 心病의 범주에 속하며, 이와 같이 邪氣가 心에 있는 경우는 여름에 榮穴에 침을 놓아야 한다. 즉 『난경』에서는 계절과 오수혈의 오행속성을 일치시켜 치료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邪氣가 오장에 있는 경우 그 장에 해당하는 오행속성을 지닌 오수혈을 선택하여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五俞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장부에 邪氣가 들어서 어떤 病證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봄이면 정혈에 자침하는데, 정혈에 자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肝에 사기가 들었기 때문이며, 간에 사기가 들었다는 것은 안색이 푸르거나, 누린내가 나거나, 신맛을 좋아하거나, 자주 고함을 지르거나,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Ⅲ. 고 찰

앞에서 『내경』과 『난경』을 비교하여 오수혈을 이용한 사시자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오수혈을 이용하여 사시자법을 시행할 경우, 오수혈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배속하는 계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주치병증 등을 통해 오행배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배속하는 계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수혈의 淺深이라는 측면과 오행을 배속하는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邪在腎, 其肝心脾肺腎而繫於春夏秋冬者, 何也, 然, 五藏一病, 輒有五也, 假令肝病, 色青者肝也, 臊臭者肝也, 喜酸者肝也, 喜呼者肝也, 喜泣者肝也, 其病衆多, 不可盡言也, 四時有數, 而並繫於春夏秋冬者也, 鍼之要妙, 在於秋毫者也.

1) 오수혈의 淺深에 대한 문제

먼저 오수혈의 깊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영추』 <구침십이원>에서는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臑,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 하여 오수혈을 샘물이 솟아 흘러 바다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오수혈은 사지말단에서 시작하여 肘膝방향으로 흐르며 배열되어 있다. 구체적인 자리를 보면 井穴은 四支爪甲의 측면에 위치하며, 榮穴은 指掌部에, 俞穴은 腕踝關節 부근에, 經穴은 腕踝 부근 및 臂脛部에, 合穴은 肘膝關節 부근에 위치한다¹⁹⁾. 그 중 井穴이 위치한 곳은 손톱 바로 옆이므로 肌肉이 매우 얇아서 침을 놓기도 어려우므로 井穴 대신 榮穴에 침을 놓기도 한다²⁰⁾.

<구침십이원>에 대한 주석가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마시²¹⁾ 장개빈²²⁾ 등은 샘물이 솟아나서 물길을 이루어 흐르면서 점점 물줄기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井穴은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脈의 기운이 처음 솟아오는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井’이라 하였으며, 榮, 俞, 經은 각각 발원지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점점 커지고 물길이 세지는 모습에서 취상하였고, 合穴은 脈氣가 經脈으로 들어가는데서 取象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井穴이 그 이름처럼 ‘우물’에서 取象한 것이라면, 땅속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물의 근원 측면에서 볼 때는 깊다고 할 수 있으며, 물줄기가

19) 崔容泰 외, 鍼灸學(上), 集文堂, pp. 184~185.

20) 本間祥白, 상계서, 難經 七十三難, pp. 405.

21) 馬蒔, 상계서, pp. 9. 其始所出之穴, 名爲井穴, 如水之所出, 從山下之井始也, 如肺經少商之類, 水從此而流, 則爲榮穴, 榮者, 釋文爲小水也, 如肺經經渠之類, 又從而水有所會則爲合穴, 如肺經尺澤之類, 是二十七氣所行, 皆在此井榮俞經合之五臟耳.

22) 張介賓, 상계서, 卷八 經絡類 第十四, pp 247. 脈氣由此而出, 如井泉之發, 其氣正深也, 急流曰溜, 小水曰榮, 脈出於井而溜於榮, 其氣尚微也, 注, 灌注也, 臑, 輸運也, 脈注於此而輸於彼, 其氣漸盛也, 脈氣大行, 經營於此, 其氣正盛也, 脈氣至此, 漸爲收藏, 而入合於內也.

모습을 드러내어 지표면을 흐르는 근원 측면에서 볼 때는 알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

井穴 뿐만 아니라 經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줄기가 드러나 흐르다가 점점 더 큰 물줄기를 이루면서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經穴인데, 물줄기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한다. 經穴도 알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깊어진 자리를 말한다면 깊다고도 할 수 있다. 즉 經脈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 흐르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井穴이 가장 얇게 자리하며 合穴이 가장 깊게 자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운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강조한다면 井穴과 合穴이 깊게 자리하고, 榮穴과 俞穴 經穴이 얇게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절에 따라 部位를 달리하거나 淺深을 달리하는 四時刺法에 있어서는 五俞穴의 깊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계절에 어떤 혈자리를 정하는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런 이유에서 『내경』과 『난경』에서 같은 계절이라 하더라도 혈자리 선택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오수혈의 깊이를 기준으로 『영추』와 『난경』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같은 정혈에 대하여 『영추』에서는 겨울에 자침하였고 『난경』에서는 봄에 자침한 차이가 있다. 양상선과 장개빈은 정혈이 깊은 곳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겨울에 옹한다고 하였는데, 이와같이 정혈을 깊이 자리한다고 보는 견해는 정혈을 통해 맥기가 밖으로 드러나 흐르기 이전의 상태, 깊은 곳에서 이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 하더라도 목에 해당하는 정혈에 자침하는 것이다. 『난경』에서는 이미 정혈을 통해 밖으로 나와 흐르는 맥기를 다스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계절에 옹하여 봄에 정혈에 자침한다고 하였다²³⁾.

23) 근원지와 발현처를 달리하여 말하는 논리구조는

즉 『내경』에서는 脈氣가 흐르기 시작하는 근원을 기준으로 혈자리를 정하였고, 『난경』에서는 脈氣가 겉으로 드러나 흐르는 측면을 기준으로 혈자리를 정한 것이다.

2) 五俞穴의 五行屬性에 대한 문제

다음으로, 오수혈의 오행속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영추』에서는 각 경맥의 井穴에 대해서만 木에 속한다는 언급을 하였고²⁴⁾, 다른 오수혈에 대해서는 火나 土, 金, 水 등의 오행속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난경』에서는 干支와 陰陽剛柔를 들어 오수혈 전체에 대해 오행속성을 밝혀 놓았는데²⁵⁾, 『난경』에 근거하여 후대 의가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다. 그 중 許任²⁶⁾은 자연계 五行之氣의

衛氣의 발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위기가 하초에서 나온다고도 하며, 상초에서 나온다고도 하는데, 하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야간에 잠잠해 있던 위기가 足少陰腎의 갈무리를 벗어나는 때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며, 상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足太陽膀胱을 통해 정명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嚴東明, 營衛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년, pp. 32~33, 43~44.)

24) 本輸篇에서는 각 經絡에 속한 五俞穴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肺出於少商, 小商者, 手大指端內側也, 爲井木. … 心出於中衝, 中衝, 手中指之端也, 爲井木. …”이라 하여 井穴을 木이라 하였는데, 나머지 榮 輸 經 合穴에 대한 오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太素와 千金方에는 모두 ‘木’자가 없다고 교감하였다. (홍원식, 상계서, 靈樞九鍼十二原第一, pp. 20~23.)

25) 本間祥白, 상계서, 難經 六十四難, pp. 372. 《十變》又言,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 陰陽皆不同, 其意何也. 然, 是剛柔之事也, 陰井乙木, 陽井庚金. 陽井庚, 庚者乙之剛也, 陰井乙, 乙者庚之柔也. 乙爲木, 故言陰井木也, 庚爲金, 故言陽井金也. 餘皆倣此.

26) 생물년대는 1570~1647. 河陽人(경북 경산군)으로 침구에 뛰어났으며, 평소 경험한 鍼灸術을 종합하여 1644년 『鍼灸經驗方』을 저술하였는데, 특히 鍼灸補瀉法에 대하여 독자적 분야를 개척하였음. (韓國醫藥人名事典과 漢醫學大辭典 韓國醫史文獻編을 종합.)

生長化收藏과 연관시켜서 오수혈을 설명하였는데, 井穴은 東方木氣가 發揚하여 만물이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의미와 통하며, 合穴은 北方水氣가 發揚하여 만물이 기운을 갈무리하는 의미와 통한다고 하였다²⁷⁾. 즉 井穴은 木에 속하고 東方木氣와 통하여 만물이 始生하는 기운을 받았으며, 따라서 邪氣가 肝에 침범한 경우에 봄에 井穴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수혈에 대한 오행배속에는 手足三陰經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手足三陽經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三陽經이라면 오행배속이 金水木火土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장에 병이 든 경우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통해 오수혈의 오행속성을 좀 더 살펴보자.

「내경」에서는 오수혈을 주치증을 한 곳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난경」에서는 한 편에서 모두 모아놓았다.

오장육부에 각각 정혈 형혈 수혈 경혈 합혈이 있으니 모두 어떤 병증을 주관합니까? 그렇습니다. 經에 말하기를 '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고 하였으니, 井穴은 가슴 아래가 그득한 병증을 주로 다스리고 榮穴은 몸이 뜨거운 병증을 주로 다스리고 俞穴은 몸이 무겁고 뼈마디가 아픈 병증을 주로 다스리고 經穴은 숨을 헐떡이고 기침을 하며 추웠다 더웠다 하는 병증을 주로 다스리고 合穴은 기운이 거슬러 오르고 설사하는 병증을 주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오장육부의 오수혈이 주로 다스리는 병증입니다.²⁸⁾

27) 許任, 鍼灸經驗方, 韓國醫學大系 Vol. 38. 麗江出版社, pp. 511~512. 井者東方木也, 萬物始生, 故所出爲井, 謂終日常汲而未嘗損, 終日泉注而未嘗溢, 今言井者, 不損不溢, 常如此焉故名. 榮者, 水始出其原, 流之尚微, 故所溜爲榮, 俞者, 水上而注下, 下復承流, 故爲俞, 原者, 三焦所行之原也, 三焦者, 元氣之別名, 故所過爲原. 經者, 水行經而過, 故所行爲經, 合者, 北方冬也, 陽氣入臟, 故爲合, 謂其經脈, 自此而入臟, 與諸經相合也.

28) 本間祥白, 상계서, 難經 六十八難, pp. 387~388.

다시 말하면 井穴은 心下滿, 榮穴은 身熱, 俞穴은 體重節痛, 經穴은 喘咳寒熱, 合穴은 逆氣而泄을 다스린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汪機²⁹⁾는, 足厥陰肝經이 횡격막을 지나 肺로 흐르기 때문에 肝經에 병이 들면 心下滿이 나타나고, 心下滿이 나타나면 肝木을 다스리는 井穴에 침을 놓는다고 함으로써, 五藏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楊維傑³⁰⁾은 心下滿은 肝病, 身熱은 心病, 體重節痛은 脾病, 喘咳寒熱은 肺病, 逆氣而泄은 腎病이라고 분류하였으며, 肝에서 膽汁을 분비하여 12지장으로 보내 줌으로써 소화를 돕는데, 만약 肝에서 조달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氣機가 울결하면 中脘部에 반드시 痞滿症이 나타나므로 心下滿이 생긴다고 하여, 서양의학적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이런 설명도 마찬가지로 陰經의 오수혈 주치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陽經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와 같은 설명들은 오장병증에 대한 경우라면 타당하지만, 육부병증에 대한 경우에는

五藏六府, 各有井榮俞經合, 皆何所主, 然經言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俞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此五藏六府井榮俞經合所主病也.

29) 汪機, 鍼灸問對, 中國醫學大系 Vol. 33. 大星文化社, pp. 63. 或曰井榮輸經合主何病也. 曰六十七難註云, 心下滿, 肝木病也, 足厥陰之支, 從肝貫膈, 上注肺, 故井主心下滿也, 榮主身熱, 心火病也, 俞主體重節痛, 脾土病也, 經主喘咳寒熱, 肺金病也, 合主逆氣而泄, 腎水病也, 此五藏之病, 各一端爲例, 餘病可以類推而互舉也, 不言六府者, 舉藏足以該之.

30) 楊維傑, 針灸經緯, 樂群出版公司, pp. 122. 井在藏屬木爲肝, 肝分泌膽汁, 輸送十二指腸, 以助消化, 若肝失條達而鬱結, 則中脘必現痞滿, 故心下滿, 當取井穴. 榮穴在藏屬火屬心, 心主血脈, 脈是營養全身根本, 若受外邪侵入, 阻礙營養進行, 使體內發生變化, 即現身熱, 當刺榮穴. 俞在藏屬脾屬土, 脾助消化, 其分野實相當西醫之淋巴, 若其吸收運化遲滯, 就發生體重節痛, 當取俞穴. 經穴在藏屬肺屬金, 肺合皮毛, 使呼吸及調溫作用, 若客邪皮毛, 調溫失常, 就發生寒熱, 客邪傳肺, 肺失肅降, 因起抵抗作用, 以事救濟, 就發生咳嗽, 兩者病證, 均用經穴. 合穴在藏屬腎屬水, 腎爲濾水器官, 膀胱乃排水總樞, 若邪熱客於膀胱, 膀胱失職, 水分就從大便排出, 發生逆氣而泄之病, 針宜合穴.

마땅하지 않다³¹⁾. 그런데도 陽經과 陰經을 구분하지 않고 오수혈을 위주로 설명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오수혈의 오행배속은 手足三陰經, 곧 五藏을 위주로 하였으며, 陽經은 陰經의 오행배속에 맞추어 함께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영추」 <순기일일분위사시>를 살펴 보면, 겨울에 井穴에 자침하며 봄에 榮穴에 자침한다고 하여, 계절과 오수혈의 오행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양상선은 각 계절마다 오수혈의 미약한 기운을 취한다고 하였으며, 장지충은 아들에 해당하는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어미에 해당하는 장의 기운을 이끌어낸다고 하여, 그 오행배속으로 보아서는 나를 생하는[生我者] 성질을 가진 오수혈을 침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井穴이 木에 속하는데 水에 속하는 겨울에 침을 놓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다. 즉 다음에 用事할 오행에 속하는 오수혈의 미약한 기운을 미리 자극하여 살살 그 기운을 끌어내 기운을 복돋아 준다는 뜻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장부를 침범한 사기가 치성하여 다른 장부로 傳變하는 길목을 미리 막아서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즉, 겨울에 腎에 병이 들면 肝이 자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계절에 用事할 肝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것은 自明한 일이므로 미리 손을 쓰는 방법인 것이다. 이는 이미 드러난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만 침자치료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질병을 미리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같은 井穴이라 하더라도 겨울에 침자함으로써 '補肝氣'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점이 질병 치료를 위주로 설명한 「난경」과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난경」에서는 봄에 井穴에 자침하며, 여름

에 榮穴에 자침한다고 하여, 계절과 오수혈의 오행이 일치한다. 그리고 肝에 邪氣가 있으면 井穴을 자극하여 肝病을 다스리며, 心에 邪氣가 있으면 榮穴을 자극하여 心病을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방법은 때에 맞는 오수혈을 자극하여 이미 성해진 邪氣를 빼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이다. 즉 「난경」에서는 病證을 치료하는 쪽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邪氣가 침범한 장부의 五行에 맞는 五俞穴을 선택함으로써 계절과 오수혈의 오행속성을 일치시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경」과 「난경」에서 제시하는 오수혈 응용 사시자법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적용하는가를 고려해 본다면 각각 그 쓰임새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자리라 하더라도 언제 그 자리를 자극하는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같은 井穴이라 하더라도 봄에 침자하면 '瀉肝邪'하고 겨울에 침자하면 '補肝氣'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내경」에서는 질병의 조기치료나 예방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였고, 「난경」에서는 질병 치료를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으로 보면 마땅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영추」 <순기일일분위사시>와 「난경」 <74년>을 중심으로 하여 오수혈을 이용한 사시자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경」에서는 겨울에 井穴, 봄에 榮穴, 여름에 俞穴, 장하에 經穴, 가을에 合穴에 자침하는 사시자법을 제시하였으며, 「난경」에서는 봄에 井穴, 여름에 榮穴, 장하에 俞穴, 가을에 經穴, 겨울에 合穴에 자침하는 사시자법을 제시함으로써,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은 틀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楊上善과 張志聰은 미약한 기운을 취하거나 母氣를 끌어

31) 여러 침구서적에서 오수혈의 주치를 설명하는데 陰經과 陽經을 구분하지 않고 陰經의 五藏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낸다고 하여 오수혈과 계절의 오행이 맞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楊上善과 장개빈은 淺深과 脈氣의 微盛으로 오수혈을 설명하면서 井穴이 깊이 자리하기 때문에 겨울에 놓는다는 설명을 하였다. 『난경』에서는 병증 치료와 오장을 위주로 오수혈을 설명하였는데, 차이나는 두 내용을 통해 오수혈의 응용범위를 더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같은 혈자리라 하더라도 어떤 용도로 언제 자극하는가에 따라 기대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내경』에 근거한다면 질병을 미리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오수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난경』에 근거한다면 이미 드러난 병증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오수혈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같은 井穴이라 하더라도 겨울에 침자하면 ‘補肝氣’하고, 봄에 침자하면 ‘瀉肝邪’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참고문헌

1. 金洋植, 崔容泰, 刺鍼深度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Vol. 4. No.1, 1987.
2.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1994.
3.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1986.
5. 楊維傑, 針灸經緯, 樂群出版公司, 1985.
6. 嚴東明, 營衛에 대한 考察-黃帝內經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
7. 吳紹德, 試論“按時刺灸”的由來和發展, 中醫雜誌 總127기, pp. 47~48. 1983.
8. 汪機, 鍼灸問對, 中國醫學大系 Vol. 33, 大星文化社, 1995.
9. 李相範, 朴英培, 姜成吉, 四時의 鍼刺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Vol.12. No.1 통권 제21호, 1990.
10. 李容範,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3.
11. 張介賓, 張氏類經, 成輔社, 1982.
12. 崔容泰 외, 鍼灸學 (上). 集文堂, 1988.
13. 許任, 鍼灸經驗方, 韓國醫學大系 Vol. 38, 麗江出版社, 1994.
14.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1987.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5.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